

우리 나라 書誌活動의 近況

—韓國學關係를 中心으로—

成 宅 慶
國會圖書館 參考書誌課長

차 례

1. 書誌活動의 必要性
2. 現代資料에 대한 書誌活動
3. 古代資料에 대한 書誌活動
4. 韓國學研究團體

1. 書誌活動의 必要性

文獻情報量の 爆發的인 增大에 따라 오늘 날의 學問은 一次文獻(原資料)의 生産 못지 않게 二次文獻(書誌資料)의 要請이 切實하여 졌다. 아니 오히려 科學·技術分野에 있어서는 一次文獻보다 二次文獻이 더 優先을 차지 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科學技術分野에 있어서 書誌資料의 하나인 各種 抄錄誌가 더 널리 普及되고 있음은 그 證左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先進國에서는 人力에만 依存치 않고 機械를 도입하여 書誌活動을 展開하여온지 이미 오래인 것은 누구나 다 周知하는 바이다.

書誌하면 얼핏 우리의 常識으로는 古書에 대해 그 刊年이 언제이며? 그 活字가 무슨 活字本이고? 또 그 紙質 版種 등을 따지는 形態書誌學을 聯想케 되는데 여기서 書誌란 그런 形態書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分析書誌 또는 列舉書誌를 일컫는 즉 各種文獻을 그 內容에 따라 分析하고 같은 類의 情報를 內包한 文獻을 列舉, 目錄하는 活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書誌(Bibliography)와 目錄(Catalog)은 거의 비슷한 말이지만 目錄은 一定한 場所에 所在하는 文獻의 List라는 뜻이 內包되는데 反해 書誌라면 現在 有無나 場所 등과는 關係없는 文獻 List 라는 좀 더 廣範한 뜻을 內包한다고 말할 수 있다¹⁾.

書誌란 情報를 提供하고 媒介作用을 하는 道具란 面에서는 目錄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大量으로 生産되고 있는 資料의 活用을 위하여 書誌活動은 必須의이며 近代의 圖書館에서 書誌의 提供은 國內의 것뿐만 아

니라 國외의 것도 要하게 된 것은 世界的인 경향이다. 그 때문에 UNESCO에선 1950年 書誌奉仕改良會議를 開催하여 이에 대한 研究와 奉仕를 諸國에 勸告한 바 있다²⁾.

書誌란 特定한 主題·內容에 대하여 作成한 것과 特定한 人物이 著述한 資料에 관하여 作成한 것, 또는 이러한 書誌를 어떠한 時期에 綜合的으로 편집한 것이 있다.

結論的으로 말해서 書誌活動은 大量의 資料가 廣範圍하게 散在하여 있는 것을 整理하여 利用者에게 活用을 하도록 案内하여 주는 便宜를 提供하고, 資料의 死藏을 防止하며 學問의 發展에 貢獻한다는 데서 그 必要性을 찾아볼 수 있다 하겠다.

그래서 오늘 날 모든 나라들은 各其 自己나라에서 生産되는 모든 文獻을 빠짐없이 다모아 容易하게 찾아볼 수 있겠음 國家書誌活動이 活潑히 進行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各級 圖書館의 發展과 더불어 60年代에 들어와서 부터 書誌活動이 활발하여 졌다. 特히 國會圖書館에는 1967년부터 參考書誌課란 正式 機構가 發足되어 本格的인 書誌活動을 始作하였고 國立中央圖書館에도 調查研究課란 機構가 新設되었으며 서울大學校附屬圖書館에도 調查課가 생겨서 書誌資料作成 및 發刊을 활발히 展開하였고 餘他 大學의 附設研究所 및 團體 등에서도 많은 書誌資料를 發刊하여 國內外 學者들의 研究活動에 커다란 貢獻을 하고 있다.

특히 近年에 이르러 우리 民族의 自主性 및 主體性을 確立하기 위해 國家의 士氣과 더불어 우리의 歷史·言語·文學 등 祖上의 精神의인 遺産을 찾아서 같고 빛내려는 韓國學研究가 活潑하여져서 이 部門의 研究所도 많이 불어 났으며 이러한 研究所에서도 韓國學關係書誌事業이 활발히 展開되고 있다.

그러면 다음에서 韓國의 現代資料에 대한 書誌活動 및 古代資料에 대한 書誌活動을 紙面關係로 대강만 살피고 韓國學研究團體을 一瞥하면서 本稿에 負荷한 責을 免할까 한다.

1) 木寺清一, 圖書館資料概說, 東京, 明治書院, 1969. p. 111
2) 椎名六郎, 新圖書館學概論, 東京, 學藝圖書, 1973. p. 280.

2. 現代資料에 대한 書誌活動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Bibliography of Korean Studies

1961. 6. 創刊 不定期 國刊

本誌는 韓國을 研究하는 外國學者들의 研究를 돕기 위하여 1945年 以後 國內에서 發表된 人文社會科學分野의 單行本과 論文을 調査하여 分野別로 이에 관한 저자(필자) 서명(논문명) 발행소(기재지) 그리고 面數를 밝히고 그 內容을 說明하였으며 이 모든 것을 英文으로 번역 刊行하고 있다.

亞細亞問題研究所는 1957年 6月 17日 韓國을 中心으로 하여 亞細亞民族의 歷史, 文化, 生活을 調査研究하여 科學的 認識을 確立하므로써 人類의 相互理解와 文化의 增進에 貢獻함을 目的으로 한다는 취지로 設立, 學術誌 “亞細亞研究”, “The Asiatic Research Bulletin”, “英文 韓國研究文獻 解題目錄”, “舊韓國 外交文書 整理編纂과 共產黨의 研究에 貢獻하고 있다.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韓國論著 解題 I—III

3卷 26cm

本書는 高麗 民族文化研究所에서 韓國에 관한 研究 著書와 論文을 對象으로 開化期 이후 韓國學研究의 整理 및 새로운 文化 創造의 基礎를 쌓기 위하여 本資料를 편찬 간행하였다.

本「韓國論著解題」는 1910年 이후부터 1970년까지 60年間 韓國文化에 관하여 著述된 各分野의 單行本과 論文을 6個 分野로 나누어 每年 1個 分野씩 6個年 計劃으로 편찬·출간하여 오고 있는데 現在까지 3권이 出刊되었는데 各卷의 內容을 보면

第1卷 言語·文學 篇

第2卷 歷史學 編

第3卷 政治·法律·經濟學 編

國立中央圖書館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 1963~

國立中央圖書館은 圖書簡法에 의하여 納本하는 國內 出版物을 총망라하여 이를 整理 國家書誌(National Bibliography)로서 國內外에 書誌情報을 提供하는 “대한민국 출판물총목록”을 年刊으로 發行하고 있다.

이는 國內外 各級 圖書館에 대한 資料의 蒐集에 寄與함은 물론 立法 司法行政 등 各機關에 配布 그들의 政策樹立에도 貢獻한다 하겠다.

本目錄은 KDC(朴奉石編)에 의하여 大分類하였으며

政府刊行物, 一般圖書, 定期刊行物 등 세부분으로 나누었다.

記述方法에 있어선 政府刊行物은 機關別 一般圖書는 韓國目錄規則에 따라 著者名 基本記入을 原則으로 하고 定期刊行物은 標題(誌名) 基本記入으로 하였다.

排列은 主題아래서의 標目은 한글音順에 의하여 排列하였다. 著者 및 書名索引 있다.

學術論著總合 索引 <1945—1972>

第1輯 法律學, 1973年

第2輯 經濟學, 1974年

國立中央圖書館에서는 1945年 以後 1972年末까지 우리나라에서 既刊된 모든 學術的文獻 즉 單行本 論文學位論文을 總合整理할 計劃으로 그 第1輯으로 法律學 編을 第2輯으로 經濟學編을 刊行하였다. 本資料의 原典으로는 韓國書目 1945—1962(國立圖),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국립도), 정기간행물기사색인(국회도), 한국박사및석사학위논문총목록(국회도)을 이용하고 있다.

國學研究論著 總覽

同上刊行會編, 1960, 乙酉文化社刊

獨立以後의 韓國學者의 손에 의한 韓國語 韓國文學 韓國史 民俗學 音樂에 관한 論著目錄으로 簡單한 解説이 있다.

國會圖書館

한국사연구 논문총목록 1, 2輯, 1967, 1970.

本目錄은 韓國史에 관한 모든 論文과 內容의 檢索에 便宜를 圖謀하기 위하여 學術誌에 掲載된 韓國關係論文의 所在을 파악하는 案內役이 되어 韓國問題를 研究하는 분들에게 參考가 되는 資料이다.

1輯은 大體로 1900年頃부터 1966년에 이르는 동안에 發表된 論文을 收錄하였다. 2輯은 1970年度에 發刊하였는데 그후 韓國學에 대한 關心이 높아지고 韓國史에 관한 論文이 부쩍 늘었고 또 過去 論文中에 누락분과 그후 새로 發表된 論文目錄을 整理 發刊한 것이다.

本資料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日本 및 其他 外國에서 發行된 史學關係 諸雜誌와 其他 學術雜誌에 掲載된 韓國史關係 論文題目을 調査蒐集 總網羅하였다.

配列은 總說과 古代, 高麗, 朝鮮王朝 등으로 時代區分하고 考古學 美術史 金石學 民俗學 言語學 民族學 등은 時代區分 없이 大分하였다. 主題內의 細部配列은 年度順으로 배열하고 同一 年度內에서는 가나다順으로 하였다. 記述方法은 論題, 著者及 編者, 掲載誌名, 卷數及 號數, 發表年度順으로 하였다.

著者名索引은 外國人名도 한글로 表記하여 韓國人名

과 함께 配列하였다.

韓國史研究論著 目錄, 1900—1960, 1973 207p.

國會圖書館은 韓國學의 研究發展에 寄與코자 韓國史 關係研究文獻目錄의 調査整理作業을 꾸준히 하여 왔으며 “한국사연구 논문총목록”과 收錄內容 및 範圍에 있어서 相互重複되고 있으나 本目錄에서는 主로 1900年을 前後로 하여 1960年사이에 發表된 論文과 單行本을 한데 묶어 分類體制를 從來와 달리하였으며 또 附錄으로 三·一運動關係文獻目錄을 철저히 調査 收錄하고 있다.

內容은 8·15前 考古民俗關係, 近代關係篇 前後期, 附錄篇으로 되어 있다.

分類는 各篇 共히 目次에 의한 主題名에 따라 分類 收錄. 記述은 編著名, 論著題名, 收錄誌名 및 發行所, 發行年度順으로 하였다. 配列은 論著者名 가나다順으로 하였다.

韓國博士 및 碩士學位論文總目錄 第1輯—·1969~

本目錄은 1969年 第1輯의 發刊以來 今年에 第5輯이 發刊되었는데 國內學界에 가장 重要한 書誌資料의 하나가 되어왔으며 우리 나라 學問研究의 年間總決算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 學者들의 研究의 重複을 避할 수 있게하는 資料인 것이다.

內容의 項目은 博士學位論文과 碩士學位論文으로 크게 나누고 그다음 學位種別名에 의하여 人文社會科學部門과 自然科學部門으로 大別하였고 다시 學位名의 가나다 順으로 分類하였다.

論文著者名의 配列은 漢字名과 한글名으로 각기 나누어 가나다 順으로 하였다.

記入形式은 著者名論題, 授與學校名, 授與年月日順으로 記入하였다.

附錄으로는 「名譽博士學位授與者名單」과 著者索引을 掲載하였다.

政治·行政·法律·文獻總目錄, 1945—72 945p. 26cm

本目錄은 解放後부터 1972年末까지 우리나라에서 刊行된 各種 定期刊行物에서 政治·行政·法律에 관한 論文 및 記事를 索引하여 分類, 整理, 收錄하여 論文의 所在 파악을 案内하는 結집이 되게한 것이다. 約 1,000餘種에 달하는 論文集 및 雜誌에서 約 40,000餘 타이틀을 索引한 것이다. 다만 法律篇에서 特殊主題의 法律關係의 論文 및 記事는 除外되었다.

記述方法은 筆者名 論題 譯者名 所載誌名 卷號 面數 刊行年月日로 記述하였으며 附錄으로 우리나라 各大學에서 수여된 政治學 行政學 法學分野의 博士 및 碩士

學位論文目錄도 收錄하였다.

정기간행물 기사색인 1945~

우리 나라에서 發行된 學術雜誌 및 政府의 定期·逐次刊行物 一般學術誌 등을 總網羅하였으며 卷末에 「收錄雜誌名一覽」을 掲載하였다.

學術的 價値가 없는 一般大衆雜誌 純文藝誌 및 準文藝誌에 掲載된 以外의 文藝作品, 뉴스, 現地르포, 敎養의 講座, 統計, 法條文 規約文(但 이에 대한 解説은 收錄함), 學報 등에 學生이 寄稿한 記事(但 大學院生의 寄稿는 收錄), 其他 參考할 資料로서 價値가 別로 없다고 認定되는 記事 등은 收錄하지 아니하였다.

近代 몇個 大學에서도 自體所藏刊行物의 記事索引이 年刊으로 發刊된 일이 있으며 本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은 1960年 1962年版이 韓國圖書館協會에서 나온 後 그 後를 이어 국회도서관에서 季刊으로 發刊하여오고 있는데 國內學界는 물론 國外 韓國關係學者들에게도 迅速한 國內書誌情報을 提供하는 有益한 資料이다.

永信 아카데미 韓國研究所

韓國雜誌概觀 및 號別目次集 中央大學出版局刊 968p. 25cm(韓國學資料叢書 第1輯)

1896年 2月부터 1945年 8月까지의 韓國雜誌를 舊韓半, 武斷政治時代 「文化政治」標榜時代 「前期, 後期」, 新日言論強要時代로 大別하여 이의 概觀과 號別目次를 年代와 月別順으로 排列한 것이다. 本資料는 主로 金根深教授가 主가되어 「亞細亞研究」에 發表하였던 것도 함께 포함된 것이다.

大韓出版文化協會

韓國出版年鑑 1963~ 卷 19cm

本書는 價格表示가 있는 trade list로서 1963年 이후 年刊으로 發刊하고 있지만 거의 1年 6個月分씩 수록하고 있어 每年刊發行이 많다.

圖書目錄은 出協을 經由하여 納本된 圖書만을 原則의으로 하였다. 目錄의 分類는 KDC에 따르는 것을 原則으로 하였으나 兒童圖書와 學習參考書는 便宜上 獨立시켰다.

本書는 1945年 이후 우리 나라에서 刊行된 圖書를 收錄하고 있다.

內容은 概觀, 圖書目錄, 統計, 參考, 名簿, 諸法規. 索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韓國雜誌協會

韓國雜誌總覽 ——韓國雜誌 70年史——

本書는 韓國雜誌協會創立 20周年記念行事의 일환으

로 우리나라 雜誌 70年의 歷史와 現況을 한눈에 알 수 있게한 資料이다.

內容은 韓國雜誌發達史

前期(草創期~解放前)

後期(解放後~現在)

雜誌界現況

雜誌關係團體現況

부록 : 參考資料文集 關係法規集 各種統計雜誌名의 索引이 있다.

文教部 學術院

學術總覽 I—VII 1966—1973

7卷 26cm

本資料는 1901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韓國內에서發表된 모든 學術的인 論著와 外國에서發表된 韓國人의 論著를 各分野別로 나누어 書目을 편찬하고 簡單한 解題를 붙여 逐次刊行中에 있다. 各卷의 內容을 보면 I. 國語·國文學篇 II. 物理·化學(I) III. 物理·化學(II) IV. 化學(III) V. 藥學 VI. 史學(前) VII. 史學(後)

卷末에 著者索引이 있다.

3. 古代資料에 대한 書誌活動

古代資料書誌는 거슬러 올라가면 19世紀末 駐韓佛蘭西 公使館員으로 在職하였던(1890. 5~1892. 5) 모리스·쿠우랑(Maurice Courant)이 1894年 오늘날 不朽의 大著라고 하는 「韓國書誌」(Bibliographie Coréenne)를 들 수 있겠다. 이는 全3卷과 增補 1卷을 發刊하였는데 이중 3册은 全體 2,200페이지 以上이며 여기에는 印刷術이 發明된 後부터 Courant이 冊을 著述할때 까지의 우리나라에서 印刷된 3,821種의 韓國本의 目錄을 掲載하고 이것을 解題한 것이었다³⁾.

近年 國內 各機關에서의 書誌活動을 살펴보면

社團法人 國學資料保存會設置

今年 6月 文藝振興院의 補助로 國內典籍을 國家나 學界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 國學開發事業의 基礎作業의 일환으로서의 社團法人 國學資料保存會가 韓國書誌學會會員을 中心으로 設置되었다. 이는

1. 文化財保護法에 의한 動產文化財中 典籍分野를 登錄함과 同時에

2. 文藝振興 5個年計劃의 하나인 國學開發事業中 典籍綜合調査를 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따라서 全國的인 個人所藏이나 公共機關에서의 保存分을 綜合的인 調査와 同時에 登錄이 되는 것이다.

綜合目錄은 調査完了後 發行되지만 部分的인 目錄을 發行케 되는데 個人所藏分은 1,000種以上의 單位로 目錄이 年 3回 나오게 되며 1,000種 以下는 2人以上의 所藏分을 合치게 된다고 한다.

74年末까지의 作業目標로서 15,000種을 調査할 것이라고 한다. 調査의 責任은 文化財專門委員들이며 이것이 發刊되면 全國的인 綜合目錄이 되며 우리 民族文化遺産의 總整理가 될 것이다.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韓國圖書 解題 1971

983p. 26cm

本書는 1910年 以前에 韓國人에 의한 著述 편찬 領域內 重要 古書 5,267種 29,015冊을 收錄解題한 冊이다. 排列은 書名의 가나다順에 의했고 解題要領도 書名 版本·卷冊數, 編著者·刊行年代·內容解題 所藏處 表示 등이다. 卷末에 分類別 書名索引, 編著者名索引이 있으며 重要圖書 136種의 圖版이 수록되어 있다. 이冊의 發刊에 80名의 執筆者가 9年이 所要되었다.

國立中央圖書館

善本解題 1~ 1970~

卷 26cm

卷1은 國立中央圖書館에 所藏된 1945年 以前의 古書 日本으로 부터 返還된 文化財, 一山文庫 등에서 壬辰倭亂(1592) 以前의 韓國本, 明의(1573年: 萬曆) 以前의 中國 및 日本 元和(1615年) 以前의 日本版本을 選定하고 그 以後 名人들의 手寫本, 手摺本 등을 合쳐 總60, 餘種의 稀觀書를 解題한 目錄이다.

卷2는 文集(筆寫本) 400種을 解題

卷3은 文集 220種을 解題

편집體裁는 哲學, 經學, 諸子, 術數, 寄數, 教育 社會, 政治, 法律, 經濟, 語學, 文學, 歷史, 傳記, 地理, 理學, 軍事, 藝術, 叢書, 雜書의 順으로 分類하였으며 卷末에 著者 書名索引과 參考文獻이 있다.

古文書 解題 I—II, 1972—73

2卷 590p. 338p.

國立中央圖書館에서는 古書研究開發의 일환으로 古文書解題를 刊行하였는데 이는 數百年동안 保存되어 現在까지 전하여온 流失되기 쉬운 筆寫文書의 綜合整理로서 2年間에 걸쳐 12,000餘點(所藏分)을 分類, 整理, 解題하여 學術活動 또는 一般行政資料로서 利用될 수 있도록 冊字로 엮은 것이다.

1卷의 內容은 土地文記, 戶籍, 所志, 啓文으로 1972

3) 李喆珪. Maurice Courant과 韓國書誌, 도협월보, 37 11卷 1號(1970. 1) p.7.

년까지 수집된 12,000餘點中 7,747點을 收錄하였으며 2卷에선 敎旨 貢物文書 試券 奴婢文書 書簡文 其他 5,700餘點이 收錄되었다.

배열은 分類別 年代順으로 하였다. 기술은 발급자 수급자 지명 연기 내용을 적기하였다. 文書名은 內容의 大分類에 의하고 每文書마다 日련번호를 넣어 열람에 편의를 기하였다.

國會圖書館
韓國歷代人物總覽

國會圖書館에서는 韓國歷代人物總覽카드를(5인치×8인치의 所定樣式) 作成하고 있는데 그 收錄 범위는 上古時代로부터 現代(作故한 分)에 이르기 까지이다.

收錄對象人物의 基準은 科學에 合格한 사람, 官職에 있었던 사람, 著書가 있었던 人士, 功績이 많았던 人士 등 典據가 確實한 歷史의인 人物에 限하고 있다.

現在 既刊된 韓國人名大事典에 收錄된 人員이 約 1萬1千餘밖에 안되는데 本「韓國歷代人物總覽」카드 3萬枚을 넘고 있으며 尙後 10萬枚 이상을 目標하고 있으며 이미 調査된 것은 韓國人名大事典國朝榜目, 國朝人物考, 海東高僧傳 등 各種人名錄과 對照檢討 누락분을 補完하고 있다.

本資料가 完成되면 國史를 專攻하는 사람뿐 아니라 기타 學界에 커다란 功헌을 하게될 것이다.

李朝王朝實錄 官職任命 記事索引

國會圖書館에서 國史編纂委員會에서 發行한 影印縮刷版인 李朝王朝實錄에 記錄된 官職任命을 索引하는 作業을 進行하고 있다. 李朝王朝實錄은 近世期の 唯一한 綜合基本史料이며 여기 記錄된 官職을 索引編纂하므로써 李朝時代의 政治社會와 時代의 흐름을 알 수 있음은 물론 그 當時 人士들의 官職任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李朝五百年間의 公務員錄이 되는 것이다. 現在 太祖(1391)부터 宣祖(1608)때 까지와 肅宗, 景宗時것을 完成하였다.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 編

奎章閣 圖書目錄 1964
6冊 26cm

本目錄은 李氏朝鮮 第22代王 正祖의 即位年(1777)에 正式 發足된 奎章閣의 西庫에 그間 所藏되어 왔던 韓國本을 經史子集別로 區分하여 가나다順으로 編成한 藏書目錄이다.

그 範圍는 經史子集全分野에 걸쳐 主로 壬辰倭亂 이후 特히 正祖 以後에 刊·寫된 資料 總 18,774種 69,362冊이 集部 1冊, 史部 3冊, 經子部·補遺 1冊에 油印 收錄되어 있고, 書名索引 1冊이 附錄되어 있다. 目

錄의 體裁는 貴重 또는 稀購한 資料의 選定 利用과 形態書誌의 研究에 도움이 되도록 版種을 비롯한 版式의 形態 序·跋 刊年 藏書紀 藏書印記 등을 詳細히 적고 있음이 特徵이라 할 수 있다.

이 目錄은 李朝後期の 國家書誌를 集大成한 것으로서, 韓國學研究의 入門의인 資料가 되는 점에서 그 價値가 크게 評價되고 있다.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附設 東亞文化研究所編
奎章閣圖書 韓國本 總目錄 1965
816p. 26cm

本目錄은 奎章閣所藏 韓國本을 서울大學校附屬圖書館이 四部別의 가나다順으로 編成하여 油印한 6冊本을 同校文理科大學 附設 東亞文化研究所가 1965년에 單冊本으로 活印한 藏書目錄이다.

本目錄은 李氏朝鮮 歷代王의 御製 御定 御筆 御書 御眞 願命 遺誥 密教 實錄 寶鑑 誌狀등을 비롯하여 各 官衙의 日記 謄錄 沿革志 등의 唯一한 原本資料가 網羅되어 있는 점에서 韓國學研究에 있어서 獨步의인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 資料이다.

서울大學校附屬圖書館
古文書集眞 1972年
238p. 36×25cm

서울大學校附屬圖書館에서는 1972年 美國하바드大學 燕京學會의 財政支援으로 所藏중인 古文書 約 5萬點中에서 李朝第1代太祖로부터 第15代 光海君 即 西紀139—1623年 까지의 文書 238件을 影印本으로 收錄 發刊한 것이다. 여기에 收錄된 文書의 種類를 보면 王旨와 같은 순수한 官文書, 紅牌 白牌와 같은 官級文書, 그리고 土地 및 奴婢文書와 같은 私文書이며 이들중 洪武 28年(太祖 4年, 1395)의 王旨는 李朝時代의 古文書로는 最古의 것으로 매우 貴重한 資料이다. 文書의 分類는 體系化된 것이 없으므로 大體로 官文書와 私文書로 大別하고 그 아래에서 文書의 種類에 따라 合稱을 부치고 그것을 다시 作成된 年月日로 文書를 原形대로 影印하지 못하고 모든 文書가 菊版에 들어갈 수 있도록 縮小하였다. 그러나 肉眼으로 充分히 볼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작은 글씨는 2,3枚로 分割撮影하여 실었다. 文書에는 그것의 通稱, 件名, 登錄番號(괄호안) 受信者 혹은 發信人의 姓名, 作成年月日 등을 記入하여 索引하였다. 合稱은 李朝法典에 나타난 文書合을 따르고 있다.

韓國의 名著
서울 玄岩社 1970
1366p. 25cm

이 冊은 韓國學研究에 造詣가 깊은 硯府 百餘名이 우

리 祖上들의 創造的인 精神文化를 발굴하기 위하여 分擔 解題한 書誌로서 新羅때 부터 李朝末까지의 名著를 골라 解題하고 있는데 解題要領은 著者の 生涯를 叙述 하고 다음에 名著의 解題, 名著가운데 著者の 思想이 가장 잘 要約되어 있는 原文을 引用 現代語로 번역 소개하였고 끝으로 名著가 쓰여진 時代의 背景과 영향, 現代의 의의를 評價하고 있다.

排列은 著者の 沒年順으로 하였고 著者未詳 또는 年代未詳을 추정年代로 하였다. 卷末에 國寶圖書解題, 韓國의 書誌 二次分選定名著目録, 韓國關係重要歐美著者索引 및 名著의 英文이 添加되어 있다.

4. 韓國學 研究團體

國內韓國學研究團體를 보면 서울의 各大學附設機關이 20個所, 一般研究機關이 18個所, 地方大學附設機關이 20個所, 地方所在一般研究機關이 5個所의 總 63個所로 文藝振興院의 韓國學實態調査에 의하여 밝혀졌는데 그名單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代表者).

世宗大王記念事業會(李 寬求)

한글학회(허 응)

民俗학회(任 東權)

韓國經濟史學會(趙 璣濬)

茶山學會(朴 鍾鴻)

韓國佛教研究院(李 箕永)

韓國思想研究會(朴 鍾鴻)

國語國文學會(金 一根)

文苑編刊會(邊 時淵)

아시아學術研究會(李 瑄恨)

韓國古典文學研究會(金 烈主)

東方古典研究院(成 樂顯)

韓國考古學會(金 載元)

韓國史研究會(李 鍾英)

生活文化研究所(송 종복)

古典研究所(정 중환)

韓日文化研究所(김 정학)

大東文化研究院(李 佑成)

佛教文化研究所(洪 進植)

東國大譯經院(李 耘虛)

韓國研究所(白 鐵)

民族文化研究所(朴 晟義)

人文社會科學研究所(이 재룡)

아시아 女性問題研究所(金 玉烈)

韓國學研究所(許 善道)

東方學研究所(閔 泳珪)

한국연구소(창 해)

人文學研究所(이 광린)

言語學研究所(박 순함)

人文科學研究所(金 一根)

農業科學研究所(현 신규)

民族文化推進會(유 봉영)

韓國語文學會(전 시권)

啓明大附設韓國學研究所(최 정여)

嶺南大附設東洋文化研究所(오 창균)

全南大人文科學研究所(신 상순)

李朝社會研究所(송 준호)

全南大國語國文學會(丁 益燮)

湖南文化研究所(高 在駢)

朝鮮大國語國文學會(김 봉영)

慶北大東洋文化研究所(김 영하)

韓國新興宗教研究所(李 康五)

圓光大附設鄉土文化研究所(유 재영)

百濟研究所(尹 武炳)

百濟文化研究所(朴 秉國)

湖西文化研究所(申 相俊)

慶北大退溪研究所(韓 明洙)

江原文化研究所(최 승순)

關東問題研究所(李 石壽)

濟州道問題研究所(현 평효)

濟州民俗學會(玄 容駿)

梨大附設韓國文化研究院(이 전호)

韓國哲學會(金 泰吉)

서울대文理大附設東亞文化研究所(고 병익)

震檀學會(李 丙燾)

白山學會(金 庠基)

高大아시아問題研究所(金 俊燁)

韓國自由教育協會(金 昌洙)

新羅侃儂文化研究所(金 宅圭)

白湖文集刊行會(尹 容鎮)

韓國研究院(千 文岩)(文藝振興院調査구락부)

韓國書誌學會(姜 尙雲)(")

國學資料保存會(姜 尙雲)(")⁴⁾

< 參考文獻 >

1. 本寺清一, 圖書館資料概說, 東京, 明治書院, 1969
2. 椎名六郎, 敎圖書館學概論, 東京學藝圖書, 1973.
3. 韓國圖書館協會, 韓國參考圖書解題, 서울 1971
4. 國會圖書館, 國內學術 및 研究團體便覽 서울, 1967.
5. 도협월보 11卷, 1號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6. 조선일보, 74.9.22日字

4) 조선일보, 74.9.22日字